

| 清泉 이제수(李弟洙) 회고록 |

아버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님

‘서울한의원’에서
‘안성성모병원’까지



이주한 지음

맑은샘

차 례

- | | |
|-----------------------------|------|
| 01·‘내리’에서 ‘대신두리’로 | … 09 |
| 02·‘가족의 내력’이 형성되다 | … 11 |
| 03·‘즐기’가 자라다 | … 16 |
| 04·아버지의 학창 시절 | … 20 |
| 05·한의사의 길을 걷다 | … 25 |
| 06·아버지에게 첫 번째 목표가 생기다 | … 29 |
| 07·아버지가 학비를 버신 방법 – 초등학생 과외 | … 34 |
| 08·아버지가 학비를 버신 방법 – 침술 알바 | … 37 |
| 09·와룡한의원 | … 40 |
| 10·“집보다 짚누리가 더 크더라” | … 42 |
| 11·〈서울한의원〉 개원 | … 45 |
| 12·〈안성제일감리교회〉와의 인연 | … 49 |
| 13·문전성시(門前成市) | … 54 |
| 14·지금의 자리로 오다 | … 57 |
| 15·할아버지, 할머니의 뒷이야기 | … 58 |
| 16·모래밭에 심은 뽕나무 | … 61 |

17. 땅콩 그리고 축산업으로	… 68
18. ‘친절’이란 이름의 진료	… 71
19. 환자를 위해 준비된 한의사	… 77
20. 아버지의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다	… 90
21. 아버지의 취미 생활 – 식물 재배와 천렵(川獵)	… 93
22. 아버지의 취미 생활 – 골프	… 100
23. 검소하신 어머니	… 103
24. 경제적으로는 ‘장남’이었던 아버지	… 106
25. 계획된 인생	… 111
26. 아버지의 ‘하얀 가운’	… 114
27. 의도된 유학 생활	… 118
28.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다	… 121
29. 아버지의 두 번째 목표	… 127
30. ‘종합 병원’을 준비하다	… 130
31. 아버지의 ‘애향심’(愛鄉心)	… 132
32. 꿈을 설계하다	… 134

33·아버지의 행복했던 시간	… 137
34·성요셉병원	… 139
35·성요셉병원	
- ‘2015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 142
36·드디어 종합 병원으로 승격되다!	… 145
37·‘인술’(仁術)의 대가(大家)	… 150
38·종합 병원 승격	
-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 153
39·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마지막 시간	… 159
40·아버지의 죽음	… 166
아버지를 후손에게 소개하는 책	… 180
부 록	… 189

‘친절’이란 이름의 진료

아버지의 진료의 특징은 ‘친절’이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버지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서 환자를 안심시키는 한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다. ‘권위적’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언제나 환자에게 몸을 낮추어 설명하셨다.

당연히 고마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감자나 다른 농산물을 선물로 갖고 오시기도 하고, 농산물로 그동안의 외상 치료비를 대신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환자들의 집안형편을 다 꿰고 계셨다. 안성이 좁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진료 중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이것도 아버지의 진료의 특징이다-환자 개개인의 집안 내력이나 가재도구를 다 아실 정도가 되었다.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잘 형성된 단골들과의 공감대를

대화의 소재로 삼아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심시켜 주셨다.

아버지는 상냥하고 자분자분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환자의 병이 낫고 속이 후련해질 정도였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이 많은 환자는 약 먹어서 낫기보다는 한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안심시켜 주는 말에 더 만족해했다.

친절을 기초로 하는 아버지의 진료 방식은, 특히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간이 한참 더 지난 뒤에야 그 효과가 인정된 것 같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지금의 의료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이 면에서 나의 아버지는 지금은 보편적이 된 치료법을 앞서 실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번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다.

“의술은 처방이나 침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친절’이지. 당시는 젊을 때라, 나는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환

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한 번이라도 웃게 만들려고 했지. 아파서 온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그들의 정신을 돋워 주는 거야. 그러면, 환자들과 신뢰가 생기지. 요컨대, 마음의 치료가 중요해. 약발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외국의 의학 전문가들도 아버지의 이 견해에 동의를 표한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적다”

[스코틀랜드의 보건 관계자인 ‘데릭 콕스’ 박사]

좋은 정신적 성향과 유머 감각,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하다. 한 의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사랑과 웃음”을 처방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친절’이 특별했던 이유는 당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이었다. 이걸 비단 안성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병원을 고르라면, 잘 설명해 주고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비스가 좋은 병원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환자들이 자기가 갈 곳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의료 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는 의료 시설도 적었지만, 의사들이 보통 환자에게 “-하세요”식의 명령조로 말했다. 의사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 뭘 자세히 물어보거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마음이 녹아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한 어투로 의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의사는, 마치 5t 트럭에 실은 모래 더미를 뒤지다가 찾아낸 쌀 한 톨처럼 희귀한 인물이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권위적이 되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춰볼 때 그 연세에 그런 친절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로 자세를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왔어?” “그 동네 누구는 집안 형편이 어땠고…….” 나의 아버지는 안성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 집이 콩밥을 해 먹는지, 팥밥을 해 먹는지 다 아셨습니다. 환자가 침을 맞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심시켜 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다.

그러나 친절한 행동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의사의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라면, 단지 몇 년도 아닌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이 하시는 일과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동기가 되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든을 바라보실 때쯤에는 가까운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30년을 이어온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던 골프도 더 이상 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환자와 얘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 나한테는 그것밖에 없어.”



서인동 목조 건물 안에 있던 진료실에서의 아버지 모습

환자를 위해 준비된 한의사

아버지는 시중 환자 치료에 열의를 갖고 계셨다. 3층 목조 건물에 살 때는 건물 일부에 온돌방으로 병실을 차리셨다.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는 낫설지만, 환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1960년대 말로 기억한다. 그때만 해도 안성에 응급실이 없었다. 아기들이 열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친숙한 의료 시설이 바로 <서울한의원>이었다. 야간에도 한의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들을 친절하게 받아 주셨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79년이였다. 몸이 불편하시어(다리에 염증이 생김) 잘 아시는 서울 녹번동 일신병원에 입원하셨다. 이때 한의원이 잠시 휴업하는 일이 있었다. 나

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기 전이라 잠을 내어 병원을 오가면서 아버지를 뵈 수 있었다. 그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받으시고는 평생 당뇨를 달고 사셔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늘 보아 왔다. 1980년대 초에는 을지로에 있는 을지병원 김응진 교수의 진료를 받으셨다. 그때는 내가 대전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여서 방학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수 있었다. 그때 이후로 평생 동안 아버지는 아침저녁으로 인슐린을 맞으며 사셨다.

2005년경부터는 망막 질환의 합병증과 함께 간헐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이따금씩 입원하셨지만 큰 후유증은 없이 한의원 진료에 임하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간간이 안과 진료를 받으셨다.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제 진료를 쉬시라’고 말씀드렸다. 평상시 진료는 보조 한의사를 써서 보시고, 아버지는 요일을 정해 놓고 진료하시라고 했는데도 “나를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봐야지” 하고 고집하셨다.

진료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때쯤 돈은 이미 많이 벌여 놓으셨다. 1980년대 들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아버지는 환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부를 가져다 준 환자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사실 ‘부’(富)는 아버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배가 부르면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한다. 이 면에서 나의 아버지는 환자들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놀랍고도 감동적인 본을 세우셨다. 이것은 내가 따라가야 할 아버지의 발자국이다.

아버지가 65세쯤 되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0년경 아버지는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실 농장에서 정원수를 가꾸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흉추 압박 골절로 척추 뼈가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태로는 우리 성모병원에 4주 정도 입원하셔야 했다. 그런데도 단 1주일 만에 보조기를 차고 한의원 진료를 시작하실 정도로 진료에 대한 열정과 환자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진료에 대한 열정과
의 싸움도 치열해졌다. 당뇨 합병증은 아버지의 피부가 약
해지게 했다. 그런데도 침을 놓으시니 침 놓는 손가락이 짓
물러졌다. 그러면, 짓물러진 곳에 반창고를 붙이고 침을 놓
으셨다.

2016년에는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괴사(壞死)가 와서 한쪽 발가락을 4개나 절단하고 서울삼성
병원에 1달 정도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도 퇴원하시자
곧바로 환자용 신발을 신고 나오셔서 진료를 보실 정도로
환자 치료에 대한 아버지의 의지는 정말 대단하셨다.

거인(巨人)

나의 아버지는 거인이었다
마구 밀치고 당기고
팔뚝에 매달려 그네를 타도
허벅지를 붙잡고 씨름을 해도
몰래 옆구리를 간질이고
겨드랑이에 손가락을 넣어도
땅속에 박힌 전봇대처럼
물속에 깊이 내린 교각(橋脚)처럼
눈보라가 몰아치고
거센 홍수가 때려도
꿈쩍도 않는 거인이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용사였다
머리를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면
그 모습이 영원히 갈 것 같던
내 마음속 우상이었다

1979년부터

전봇대가 조금씩 기울어졌다

교각에는 금이 생기고

홍수가 때릴 때마다

금은 크고 깊어져 갔다

큰아들이 옆에 있어

병원을 함께 다녔지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거인이

세월과 질병의 공격을 받아

조금씩 스러져 가는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에 걸쳐 진료를 쉬시는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설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안성성모병원을 개업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요일에 예약 환자만 받기 시작하셨다. 예약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보기 위해 한의원으로 나가셨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근면하고 성실한 진료를 실천하신 분이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1~2년 후에도 “한의원이 어디 있느냐?”며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계획된 인생

할아버지를 닮았던 아버지는 성실하고 근면하시며 절약 정신이 강하셨다. 또 모든 생활을 계획에 따라 사셨다.

하루의 저녁에 다음날을 계획하고, 주말에는 다음 주를 계획하셨다. 월말이면 다음 달을 계획하고, 연말에는 다음 해를 계획하셨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시면 농장에 나가 일꾼들에게 그날 할 일을 지시하셨다. 7시쯤에는 안성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면 한의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 진료를 보셨다. 오후 6시가 되면 다시 농장에 가셔서 일꾼들이 하루 일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작업을 지시하셨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언제 누구한테 시킬 것인지를 다 메모해 두셨다. 주무시기 전에도 내일 할 일을 미리 머릿속으

로 그려 보시고, 일(日), 주(週), 월(月), 년(年) 단위로 할 일을 적어 벽에도 붙이시고 책상 유리 밑에도 넣어 두셨다. 아버지의 사무실 벽과 책상 유리 밑에는 메모로 빼곡했는데, 평생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아버지에 대해 하신 이런 말씀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사람은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이지. 잠시도 허튼 시간을 안 내 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업무를 미루기 십상이다
‘오늘’은 어제 생각한 그 ‘내일’
어제 꿈꾸었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어제는 더 여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시간이 실제로 그런가?

시간은 유한하다
거침없이 흐르고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지 말라

생각을 바꿔 오늘부터 시작하라

- 《아침 5시의 기적》 중에서

아버지의 ‘하얀 가운’

블로그의 한 작가는 이발사였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글을 썼다. 고향이 묵호(지금의 동해시)였는데, 작가가 어릴 때 살던 당시의 묵호는 석탄 가루가 날리는 작은 항구 도시였다.

작가의 아버지는 목에 예쁜 천을 두른 7살 딸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위로 ‘사각사각’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이발사였던 아버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이다음에 자라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할 정도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다.

세태의 흐름에 따라 젊은 남자들이 미용실을 찾기 시작하

면서 <우리 이용소>는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고집스럽게 가게를 접지 않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간판을 내렸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작가는 사랑이 깃든 아버지의 이발용 가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한다.

작가는 결혼한 뒤에 보았던 아버지의 가운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기억 속의 가운은 늘 백옥같이 하얀색이었는데,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가운은 살갓에 핀 검버섯처럼 검은 염색약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의 가운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분신이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아버지의 하얀 가운이 오버랩되는 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어릴 적부터 망막에 스캔하여 뇌리에 잘 저장해 두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듯이 잊을 수 없는 나의 아버지의 상징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하얀 가운을 보기 위해 위의 글을

쓴 작가처럼 어딘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나의 아버지의 하얀 가운은 누렇게 더럽혀질 이유가 없다. 나의 하얀 가운은 깨끗이 세탁하여 늘 백옥같이 하얀색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옷들 가운데 골라 낸 하얀 가운을 입혀 주셨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입었다가 나중에야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나를 위해 준비된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작가의 아버지의 하얀 가운과는 달리 나의 아버지의 하얀 가운이 ‘과거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유다.

아버지는 하얀 가운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의료인으로서 가지셨던 그 생각과 정신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환자를 대하실 때마다 보여 주셨던 그 놀라운 친절과 유머감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자신의 시간과 활력을 환자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던 그 감동적인 행동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당신을 낳고 키워 준 안성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안성성모병원〉은 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이요, 내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건물이다. 병원이 존재하고 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한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가운과 나의 가운이 같은 색깔인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게 될 나의 후손들에게는 이전에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 내게 하얀 가운을 입혀 주신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하얀 가운을 입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목표

아버지는 한의 업을 하시면서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한방 치료에 안타까움이 많으셨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동양한의대 동기들 중에 의대로 편입하여 의사가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의사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셨다.

이처럼 한의학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는 자녀를 의사로 만들려는 결심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셨다.

초등학생 때부터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나의 장래 희망이 '의사'로 되어 있고,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희망도 '의사'로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단단히 세뇌가 된 나는 크면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자랐다. 아버지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시는 모습은 자연스레 나의

장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잘해야 했다. 아버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장남인 내가 어떨지, 잘할지 못할지 궁금하셨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때는 성적표가 ‘잘했다’나 ‘못했다’ 혹은 ‘수’, ‘우’, ‘미’, ‘양’, ‘가’로만 표시되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수를 알 수는 없었다. 중학생 때부터는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나오니까—전교에서 1, 2등을 했다—아들의 점수를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되셨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결정까지 내리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야겠다는 아버지의 목표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열정과 목표 달성을 충족시켜 줄 만큼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가 세운 목표에 순응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맞아떨어지다”에는 “음악 따위에서, 가락이나 호흡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다. 또 영어로는 “Fall into place”라고 한다.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 자리에서 빗나가지 않고 꼭 그 자리에 맞춰

떨어졌던 것이다. 처음 내 성적표를 보시고 당신의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흐뭇해진다.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2중주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야, 즉 맞아떨어져야 청중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바이올린이 피아노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피아노 소리가 너무 튀거나, 바이올린이 엉뚱한 곡을 연주한다면 두 악기는 십중팔구 준비한 곡을 다 끝마치지도 못할 것이다.

다행히 나와 아버지는 멋진 2중주를 연주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저만치 앞서 달려가며 연주하시면, 나는 그 뒤를 쫓아가며 아버지가 연주하시는 곡을 잘 살려 나갔던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악기는 잠잠해졌다. 그러나 나의 악기는 혼자서도 계속 소리를 내고 있다. 낯설지 않은 ‘음’(音), 안성 사람들이 늘 보고 듣던 ‘소리’, 다른 듯 닮았고, 닮은 듯 다른 소리다. 아버지의 소리 같기도 하고, 아들의 소리 같기도 하다. 아버지의 음이 아들의 손으로 장식되고 발전되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 많이 즐겁게 해 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종합 병원’을 준비하다

내가 1981년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안성에 종합 병원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보험 회사 여사님들을 한의원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겸 보험 적금을 많이 드셨다. 책상 옆에 보험금 불입 날짜, 보험금 타는 날짜 등을 꼼꼼히 적어 두셨다. 또 보험 여사님들에게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얘기해 달라고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갈아타기도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을 책상 옆에 빼곡히 적어 두셨다.

1993년 병원 건축 당시 총 공사비가 33억 원-땅은 있었고 건축비가 들어갔다-이었는데, 그중에 아버지의 돈이 23억 원 들어갔다. 나머지 10억 원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내

가 빌렸다.

내가 병원장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건축 자금을 다 대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에 내가 세 들어 있는, 다시 말해 아버지는 건물주이시고 나는 임차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비영리 법인 청천의료재단으로 하면서 아버지는 이사장이 되시고 나는 병원장이 되었다. ‘청천’(淸泉)은 아버지의 호이다.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부모님이 나를 보러 대전에 오셨다.
함께 금강유원지에 가서 텐트 친 식당에서 매운탕 드시는 모습

아버지의 ‘애향심’(愛鄉心)

아버지가 안성에 병원을 설립하신 데는 당신이 안성에서 번 돈을 안성으로 환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2004년에 성요셉병원을 개원하면서 2개의 병원을 비영리 법인화한 것도 아버지의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실 종합 병원을 지으려면 큰 도시에 가서 짓지,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 안성에다 지으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손익보다 애향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안성 사람들이 갖다 준 돈이니까 다 지역에 풀겠다는 생각이었어. 자식들이야 장성해서 알아서 먹고 살 거고, 돈으로 갖고 있어 봐야 후손들이 다 써 버릴 텐데, 사회로 헌납

해서 요지부동의 재산으로 만들어 놔야 후손들이 계속 끌고 갈 거 아니겠어?”

후에 아버지가 모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하신 말씀이다. 나의 아버지는 안성 시민의 주치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고향 안성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다. 안성에서 번 돈을 안성에 환원하여 지역에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줄 안성의 랜드마크 병원을 짓고 싶으셨던 것이다.

성모병원은 철물, 자재, 정비, 출장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최대한 안성 지역에서 해결한다. 안성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역을 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병원장의 변함없는 경영 철학이다.

꿈을 설계하다

1992년에 내가 대전 충남대 신경외과 수련의 4년차가 되면서 병원 설계도 제작에 들어갔다. 마침 아버지 친구분의 사위가 수원에 설계사 사무소를 했다. 나는 대전과 수원을 오가면서 내 생각을 설계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병원 건물을 설계할 때 나는 대학병원 구조밖에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터는 굉장히 복잡다단하였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장터라 땅이 좁은데다가 모양도 16각형이 나왔다. 그 안에 대학병원 구조를 흉내 내어 외래 수술실, 병동 응급실 자리를 만드느라 애를 먹었다.

1993년에 건축 공사를 시작한 후에도 여러 번 설계를 변경하느라 현장 소장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였다. 현장 소장도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면 싸게 사서 넓게 지을 수 있는데, 왜 비싼 시내 한복판에다 병원을 짓느냐?”고 물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것은 (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경제 논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쩌다 장사를 잘해서 자기 돈주머니를 두둑이 채운 지방의 소위 ‘성공한 한의사’에 불과한 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큰 도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서와 같이 아버지에게는 경제 논리에 물들지 않은—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말은 아니지만—그분만의 속 깊은 정감(情感)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해 오시면서 기반을 잡으셨다. 건축할 때는 주민들도 “서울한 의원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말했다. 시장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은 장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리를 떠나기가 싫으셨던 것이다.

1993년 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 후 <청주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병원 신축 관리 감독차 청주와 안성을 왔다 갔다 했다.

1994년 4월 1일 안성성모병원 개원을 앞두고서 봉직의

생활을 접고 병원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처음 병원 건물 안에는 서울한의원이 같이 있었다. 4~5년 지나서 지금의 별관을 매입하게 되자, 별관 2층으로 한의원을 옮기고 본 건물과의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



신관 짓기 전 본관의 모습